August 12, 2021

Domestic News

국민지원금, 스타벅스 안되고 전통시장 편의점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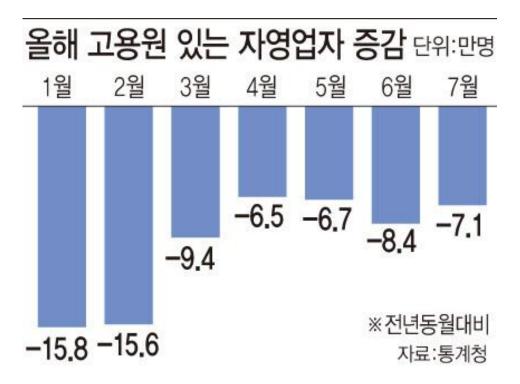
전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단독 브랜드 매장은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고,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업체에 두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했지만 이케아·애플스토어와 같은 외국계 유통판매점과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9&aid=0002691777

<u>'코로나 4차유행' 고용시장 양극화 심화...</u> 자영업·일용직·30대 덮쳐



코로나194차 대유행의 충격이 자영업자,30대, 일용근로자 등을 덮쳤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세가 5개월째 이어졌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강화한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만 2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4차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는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에 따른 운수·창고업 취업자와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취업자 수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 취약계층에 가해진 충격은 뚜렷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334만 5000 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 6000명 줄어 전월(16만 4000명) 감소폭을 확대했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을 넘어서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1만 2000명 감소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같은 여파에 일용근로자도 같은 기간 17만명 줄며 전월(11만 4000명)대비 감소폭을 크게 확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008367

<u>김밥집 집단 식중독 원인은 '달걀'...</u> "만진 뒤 꼭 손 씻어야"



최근 밀면·김밥 전문점 등에서 수백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김밥 전문점 2곳에서는 이달 초 이후 27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환자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최근 400여 명의 환자가 나온 부산 연제구 밀면집에서 도 식자재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신고된 집단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달걀에 의한 것(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두 집단발생과 연관된 균은 닭의 분변에 오염된 달걀에서 흔히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달걀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 이들을 활용한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31&aid=0000618191

Overseas News

Italy may have registered Europe's hottest temperature on record



The Italian island of Sicily may have registered the hottest temperature ever recorded in Europe - 48.8C (119.8F).

Regional authorities reported the reading, which needs to be verified by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near Syracuse on Wednesday. According to the WMO, the current official record in Europe is 48C, registered in Athens, Greece, in 1977.

The latest heatwave in Italy is being caused by an anticyclone - nicknamed Lucifer - moving up from Africa. Anticyclones are areas of high atmospheric pressure where the air is sinking. Lucifer is forecast to head north across mainland Italy, further raising temperatures in cities including the capital, Rome.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8130893

New Zealand borders to remain closed for rest of the year



New Zealand Prime Minister Jacinda Ardern has said that that the country's borders will remain closed until at least the end of the year.

She said an elimination strategy was the best way to keep Covid-19 out and the economy open. The prime minister also said New Zealand would move to a new individual risk-based model for quarantine-free travel from the start of next year.

The country has recorded just 26 deaths in a population of just under five million people. "We're simply not in a position to a fully reopen just yet," Ms Ardern said in a speech at a forum about reconnecting New Zealanders to the world. "When we move we will be careful and deliberate, because we want to move with confidence and with as much certainty as possible."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182418

North Korea issues warning to US and South Korea over 'hostile acts'



A senior North Korean official has denounced South Korea over it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are due to begin this week, warning that such actions risked provoking "a serious security crisis."

"They must be made to clearly understand how dearly they have to pay for answering our good faith with hostile acts after letting go the opportunity for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Kim Yong Chol said in the statement, released on state media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Kim, who was Pyongyang's former spymaster and who served as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counterpart during talks with Washington, said authorities in Seoul were "defying the opportunity" to improve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nducting "frantic military exercises regarding our state as the enemy."

https://edition.cnn.com/2021/08/11/asia/north-korea-us-military-drills-intl-hnk/index.html

Domestic Market Issue

부동산 명가 마스턴운용, 공모시장 진출 '출사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공모펀드 시장에 진출한다. 2019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본격 시행되면서 사모 비히클을 통한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스턴운용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인가를 신청했다. 2019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등록한 지 약 2년 만이다.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해결책 모색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4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종합·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환원시켜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그동안 사모리츠와 사모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모리츠와 사모펀드가 보유한 토지에 분리과세 적용을 해제하고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809153913336010291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u>롯데월드타워, 오피스 '100% 임대' 달성했다...</u> 오픈 4년만



롯데물산이 롯데월드타워 오피스의 100% 임대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2017년 4월 그랜드 오픈 이후 4년만이다.

롯데월드타워 오피스는 지난 7월 기준 '우아한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임대 100%를 달성했다. 롯데 월드타워 14~34층에 위치한 오피스에는 총 17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했다.

김상천 롯데물산 운영사업부문장은 "입주기업들의 관심과 타워의 우수한 입지를 기반으로 오피스 100% 임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다수의 스타트업, 해외진출, 사업영역 확장 등을 앞두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nderline{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109015133127}$

마용성 이어 광진구도…30평형 20억 넘었다

'30평형 20억 클럽' 가입 비강남권 주요 단지

지역	단지	거래액(원)	
광진 광장	광장힐스테이트	21억 8,000만	
마포 염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20억	
용산 보광	신동아 1단지	22억	
성동 성수2가	청구 강변 1단지	21억 5,000만	
동작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21억 9,000만	

※전용 84m²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광진구에서 전용 84m²(30평형) 아파트가 최초로 20억 원을 넘긴 가격에 거래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에서 마포·용산·성동·동작구에 이어 광진구까지 '30평형=20억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30평형이 처음 15억 원에 거래됐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17일 21억 8,0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같은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는 올해 1월 거래에서 나온 19억 9,000만 원이다.

일반 아파트 30평형 기준으로 강남 3구에서는 이미 20억 원을 넘긴 거래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비강남권에서도 20억 원을 넘는 거래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현재 마포와 용산·성동·동작구 등에서 나왔고 이번에 광진구까지 가세한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5BLJOB6/GB03

JLL Income Property Trust buys interest in \$1.2bn single-family rental portfolio



JLL Income Property Trust has acquired an approximately 47 percent interest in a single-family rental portfolio.

The existing portfolio of over 4,000 homes was assembled and is managed in a venture with affiliates of Amherst Residential, an Austin, Texas-based investor and manager of single-family rental homes and an institutional investor.

Income Property Trust's 47 percent investment was acquired for approximately \$560 million based on an overall portfolio valuation of \$1.2 billion. The portfolio is broadly diversified across fourteen major markets in 10 different states with homes spread across multiple locations within these markets.

CBRE Global Investors closes \$67m loan for Houston multifamily property



CBRE Global Investors, through one of its sponsored funds, has closed on a \$67 million mortgage loan for Madera Residential to acquire a 432-unit multifamily property in Houston.

The floating-rate loan has an initial term of three years, which can extend up to two additional years, and includes future funding to finance the sponsor's business plan.

Known as La Maison River Oaks Apartments, the four-story building is located at 2727 Revere Street in Houston's affluent River Oaks submarket. The property offers a mix of one-and two-bedroom apartments and features an amenity collection that includes two swimming pools, three outdoor courtyards, a rooftop terrace, a fitness center, a business center, a resident's lounge, a dog park and a secured multilevel parking structure.

https://www.creherald.com/cbre-global-investors-closes-67m-loan-for-houston-multifamily-property/

Amazon announces new investment in Florida



Amazon.com, Inc. is expanding its investments in Florida with a new robotics fulfillment center and five new delivery stations.

The new 630,000 square-foot fulfillment center, which is anticipated to launch in Tallahassee, Florida in late 2022, will create more than 1,000 new, full-time jobs.

Amazon said delivery stations offer entrepreneurs the opportunity to build their own business delivering Amazon packages. "In addition, independent contractors gain the flexibility to be their own boss and create their own schedule delivering for Amazon Flex.," said in a press release.

https://www.creherald.com/amazon-announces-new-investment-in-florida/

Daily FX Update

Exchange Rate

통화명	전일 환율 (원)	당일 환율 (원)	전일 대비
미 달러화 (USD)	1148.5	1155	▲ 0.57%
위안화 (CNH)	177.15	178.03	▲ 0.50%
유로화 (EUR)	1346.04	1355.97	▲ 0.74%
일본 엔화 (100 JPY)	1038.76	1045.96	▲ 0.69%
영국 파운드화 (GBP)	1589.24	1601.64	▲ 0.78%
싱가포르 달러화 (SGD)	844.61	851.24	▲ 0.78%
스웨덴 크로나화 (SEK)	131.73	132.95	▲ 0.93%
노르웨이 크로네화 (NOK)	128.71	130.4	▲ 1.31%
덴마크 크로네화 (DKK)	181	182.33	▲ 0.73%
캐나다 달러화 (CAD)	917.59	923.59	▲ 0.65%
뉴질랜드 달러화 (NZD)	805.1	813.47	▲ 1.04%
호주 달러화 (AUD)	843.92	851.75	▲ 0.93%
홍콩 달러화 (HKD)	147.59	148.47	▲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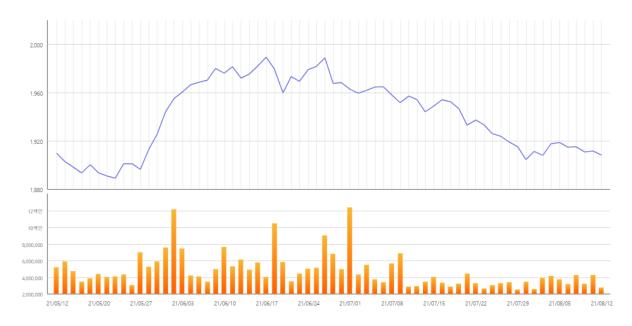
1,159.30원 전일대비 ▲2.30(+0.20%)

🔜 2021.08.12 13:41 하나은행 | 고시회차 16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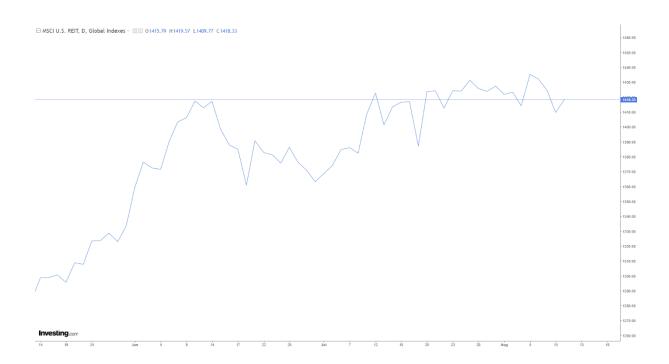
Key Real Estate Index

리츠인프라 우선주 혼합지수 - KRX



리츠인프라·우선주 혼합지수는 거래소 상장종목 중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종목 및 인프라(사회기 반시설투·융자회사) 종목과 유가증권시장의 우선주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되, 리츠와 인프라 등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종목의 편입비중을 높여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MSCI US REIT Index



Dow Jones Global~ Index

